멍냥뉴스 동네방네 · 무료 가이드북

# 강아지 기초 교육

2권 · 집 안 문제 행동
무는 버릇·배변·켄넬·혼자 있기

나눔판 ② · 무료

기준일 2026-11-08 · 구독 없이 무료
포근지기가 만든 강아지 생활 가이드 — dogdo209.com

시작하기 전에

# 이 책을 읽는 법

강아지를 새로 맞이했거나, 산책만 나가면 줄을 당기고 손을 무는 우리 아이 때문에 막막한 분을 위한 책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이 책의 약속 세 가지

- **보상으로 가르칩니다.** 미국애견협회(AKC), ASPCA, VCA 동물병원 등이 공통으로 권하는 방법만 담았습니다. 혼내거나 겁주는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 **날짜와 출처를 적었습니다.** 기준일은 2026-11-08입니다.
- **진료나 전문 훈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래 '전문가에게 먼저' 상자의 신호가 있으면 책보다 전문가가 먼저입니다.

**이럴 땐 책보다 전문가에게 먼저**

으르렁거리거나 이를 드러내며 무는 행동이 반복될 때 · 자해하거나 물건을 부수며 탈출하려 할 때 · 사료를 거부하며 심하게 불안해할 때 · 갑자기 행동이 달라졌을 때(통증 같은 건강 문제일 수 있음) · 몇 주 꾸준히 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수의사나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이나 영양제는 반드시 수의사 처방에 따릅니다.

**모든 훈련에 통하는 원칙 5가지**

① **짧게, 자주**: 한 번에 5~10분, 하루 2~3번
② **성공으로 끝내기**: 마지막은 꼭 해낸 동작으로
③ **바로 보상**: 행동 직후 1~2초 안에
④ **가족 모두 같은 규칙**: 한 사람이라도 다르면 헷갈립니다
⑤ **혼내지 않기**: 실수는 환경과 타이밍을 고치는 신호입니다

2부

# 집 안 문제 행동

5장~8장
무는 버릇, 아파트 배변 교육, 켄넬 교육, 혼자 있기와 분리불안까지.

5장

# 무는 버릇

강아지가 손과 소매를 무는 것은 대부분 **탐색, 이앓이, 놀이 중 흥분** 때문입니다. 공격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지만, 그냥 두면 습관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잡아 주세요.

## 지금 쓰는 4가지 방법

1. **"아야!" 하고 놀이 멈추기**: 짧고 높은 소리를 낸 뒤 몇 초간 손을 거두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세게 물면 재미있는 놀이가 끝난다"를 배웁니다(바이트 억제).
2. **씹을 장난감으로 바꿔 주기**: 물려는 순간 바로 옆의 장난감을 대신 물려 줍니다.
3. **반복되면 짧은 타임아웃**: 10~30초 동안 자리를 떠나거나 안전한 다른 공간으로 분리합니다.
4. **얌전할 때 칭찬**: 손 주변에서 얌전하거나 장난감만 무는 순간에 바로 보상합니다.

## 이앓이 시기

| 월령 | 특징 |
|---|---|
| 생후 2~4개월 | 유치가 남아 있고 탐색 목적의 물기가 많음 |
| 생후 4~6개월 | 영구치가 나며 이앓이 절정, 물기가 가장 심한 시기 |
| 생후 6~7개월 이후 | 영구치가 자리 잡으며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듦 |

젖은 수건을 말아 냉동해 두면 시원해서 잇몸이 편해집니다. 고무·로프·딱딱한 간식 등 질감이 다른 씹개를 돌려 주세요.

## 저녁에 유난히 심하다면

하루 종일 쌓인 에너지나 **잠 부족**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낮에 산책, 냄새 맡기 놀이, 짧은 훈련으로 몸과 머리를 쓰게 하고, 낮잠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너무 피곤한 강아지는 더 예민해집니다.

>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입을 틀어막거나 코를 때리거나 바닥에 눕혀 제압하는 방법은 AKC와 ASPCA 모두 권하지 않습니다. 사람 손을 두려워하거나 방어적 공격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가족 모두 같은 규칙으로

한 사람은 "아야" 하고 멈추는데 다른 사람이 손을 흔들며 놀아 주면 강아지는 배울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흔들기 쉬운데, 강아지에게는 더 신나는 놀이로 보입니다. **물면 조용히 손을 거두고 자리를 피하기**를 아이에게 미리 알려 주고, 처음 몇 주는 어른이 함께 있을 때만 놀게 하세요.

## 산책 중 리드줄을 무는 경우

줄을 당기며 실랑이하면 놀이로 받아들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강아지가 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산책 전에 충분히 놀아 흥분을 낮추는 것이 근본 방법입니다.

| 주차 | 하루 평균 물기 | 세기(약/중/강) | 주로 물 때 |
|---|---|---|---|
| 1주차 | | | |
| 2주차 | | | |
| 3주차 | | | |

'약한 물기로 줄어드는가'가 진짜 진전입니다. 출처: 멍냥뉴스 '강아지 물기 버릇 고치는 법', AKC, ASPCA. 이 앓이 시기가 한참 지난 성견이 자주 문다면 두려움·통증·자원 보호 같은 다른 원인일 수 있으니 수의사나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6장

# 아파트 배변 교육

원리는 마당이 있는 집과 같지만, 아파트는 밖으로 나가는 데 **몇 분이 더 걸립니다.** 강아지는 마려운 느낌과 실제 배변 사이가 짧기 때문에, 이 몇 분이 실수와 성공을 가릅니다. 해법은 더 촘촘한 타이밍입니다.

## 월령별 배변 시간표

| 월령 | 참을 수 있는 시간(대략) | 배변 기회 |
|---|---|---|
| 8~10주 | 약 2시간 | 1~2시간마다, 기상·식사·물·놀이 직후 |
| 3개월 | 약 4시간 | 낮 동안 2시간마다 |
| 4개월 | 약 5시간 | 낮 동안 2~3시간마다 |
| 5~6개월 | 약 6~7시간 | 3~4시간마다, 밤 배변이 필요할 수 있음 |
| 6개월 이상 | 약 7~8시간 | 하루 3~4번 정해진 시간 |

확인일 2026-11-08 · 출처: AKC, VCA 동물병원 하우스트레이닝 안내('월령 + 1시간'은 대략적 기준). 개체 차이가 큽니다.

**꼭 추가할 4번**

기상 직후 · 식사 직후 · 물을 많이 마신 직후 · 신나게 논 직후에는 월령과 상관없이 배변 기회를 줍니다.

## 배변 장소 고르기

| 방식 | 알아 둘 점 |
|---|---|
| 산책(화단·산책로) | 최종 목표지만 도착까지 시간이 걸림 |
| 배변패드 | 초기에 편리. 나중에 실외로 전환할 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
| 인조잔디 매트·배변판 | '잔디 = 배변 장소' 감각을 익혀 전환이 매끄러움 |
| 베란다 배변 공간 |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상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관리사무소 확인 |

어떤 방식이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몇 주는 매번 같은 장소로 데려가세요. 장마철에는 패드 교체를 하루 이틀 앞당기고 탈취 시트를 더 깔아 냄새가 복도로 퍼지지 않게 하세요.

## 지켜보지 못할 때는 켄넬로 사고를 막기

강아지는 잠자는 공간을 더럽히지 않으려 합니다. 몸에 맞는 크기의 켄넬은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켄넬 사용법은 7장에서 다룹니다. 어린 강아지는 켄넬 안에 **3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VCA 동물병원의 권고입니다.

## 신호를 읽고, 성공에 보상하기

- 한 곳에서 냄새를 맡거나 빙글빙글 돈다
-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자세를 낮춘다
- 낑낑대며 현관 쪽으로 간다

정해진 자리에서 성공하면 **바로 그 직후** 칭찬하고 간식을 주세요. 배변 중에 방해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혼내지 마세요**

강아지는 시간이 지난 뒤의 벌을 자기 행동과 연결하지 못합니다. 코를 들이대는 것은 공포와 혼란만 키웁니다. 실수한 자리는 **효소 세정제**로 냄새를 완전히 지워야 같은 자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계속되면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동물병원에서 확인하세요.

## 이럴 땐 이렇게

| 상황 | 대처 |
|---|---|
| 엘리베이터 가는 길에 실수 | 혼내지 말고 치운 뒤, 다음에는 몇 분 일찍 출발. 안정될 때까지 복도 구간은 안고 이동 |
| 이사한 뒤 실수가 늘었다 | 며칠간 배변 간격을 좁히고, 쓰던 패드·배변판을 그대로 가져가 익숙한 냄새 유지 |
| 밤에 불안해서 낑낑 | 밤 배변 시간을 규칙적으로 잡고, 현관·복도 소음은 매트로 줄이기 |

**동물등록도 함께**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입니다. 배변 교육과 별개로 등록 여부도 챙기세요.

| 주차 | 지정 장소 성공 | 실수 횟수 | 주로 실수한 시간대 |
|---|---|---|---|
| 1주차 | | | |
| 2주차 | | | |
| 3주차 | | | |

출처: 멍냥뉴스 '아파트에서 강아지 배변훈련 하는 법', AKC, VCA, ASPCA. 일관되게 하면 대부분 4~6개월 안에 눈에 띄는 진전이 있고, 견종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7장

# 켄넬(하우스) 교육

켄넬은 감옥이 아니라 강아지만의 아늑한 방입니다. 강아지는 좁고 둘러싸인 공간을 안전하게 느끼는 습성이 있어서, 제대로 익히면 **배변 교육, 안전 관리, 이동·병원 스트레스 줄이기**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사가 잦거나 비행기 이동이 있을 때 특히 쓸모가 큽니다.

## 크기: 서고, 돌고, 편하게 누울 만큼

너무 큰 켄넬은 한쪽에서 자고 다른 쪽에서 배변하는 습관을 만들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성견 크기를 사서 **칸막이로 공간을 줄였다가** 자랄 때마다 넓혀 주는 방법을 훈련사들이 추천합니다.

| 강아지 체중 | 권장 켄넬 길이(대략) |
|---|---|
| 약 11kg 이하 | 약 61cm |
| 약 12~18kg | 약 76cm |
| 약 19~32kg | 약 91cm |
| 약 32~41kg | 약 107cm |
| 약 41~50kg 이상 | 약 122cm |

확인일 2026-11-08 · 출처: PetMD 켄넬 크기 안내를 옮긴 멍냥뉴스 글. 다 자란 예상 체중 기준입니다.

## 단계별 일정 (새로 온 강아지 기준)

| 단계 | 할 일 | 기간 |
|---|---|---|
| 도입 | 문을 열어 두고 간식·식사·장난감을 안에 넣어 스스로 들어가게 | 1~3일 |
| 짧게 문 닫기 | 같은 방에 있으면서 몇 분씩 닫기 | 3~5일 |
| 시간 늘리기 | 집에 있는 동안 30~60분 | 1~2주 |
| 짧은 외출 | 몇 분 외출 후 돌아오기, 1시간까지 | 2~3주 |
| 밤샘 | 낮에 안정되면 밤에 재워 보기 | 3~4주 |

개체 차이가 큽니다. AKC는 하루 만에 적응하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 켄넬을 놓을 자리와 층간소음

- **좋은 자리**: 가족 동선이 보이되 통로에서 약간 비켜난 거실 구석, 침실 한쪽(밤샘 초기에 안정).
- **피할 자리**: 현관 바로 옆,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 에어컨·보일러 바람이 직접 닿는 곳, 이웃집 침실과 붙은 벽.
- 적응을 서두르지 말고, 짖음이 심해지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세요.
- 켄넬 아래와 주변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낮 시간**에 먼저 연습하세요.
- 입양·이사 직후에는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 "적응 훈련 중이라 며칠 소리가 날 수 있다"고 미리 알려 두세요.

**절대 하지 말 것**

① 켄넬을 벌로 쓰기 ② 낑낑대는 도중에 바로 꺼내 주기(낑낑 = 풀려난다고 배움) ③ 곧바로 오래 가둬 두기 ④ 산책·배변 없이 넣기 ⑤ 켄넬 안에서 목줄이나 인식표를 채워 두기(창살에 걸릴 수 있음)

## 밤에 낑낑대는 첫 며칠

첫날과 둘째 날 밤에 우는 것은 정상입니다. 자기 전 마지막 배변, 충분한 활동으로 피곤하게 만들기, 초기에는 켄넬을 침대 가까이 두기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방광 조절이 미숙한 어린 강아지가 진짜 배변이 급해서 우는 경우에는 꺼내 주세요.

> **켄넬에 있는 시간**
>
> 월령이 어릴수록 짧게 둡니다. 어린 강아지는 한 번에 3시간 이상 두지 말고(VCA), 켄넬이 운동·배변·교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쉬지 않고 짖거나 침을 심하게 흘리거나 탈출하려는 공황에 가까운 반응이 있으면 수의사나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날짜 | 단계 | 문 닫은 시간 | 낑낑·불안 정도 | 다음 단계? |
|---|---|---|---|---|
| | | | | |
| | | | | |
| | | | | |

출처: 멍냥뉴스 '강아지 켄넬 훈련', AKC, VCA, PetMD

8장

# 혼자 있기와 분리불안

출근하려는데 문 너머로 낑낑거림이 들리고, 돌아오면 현관 앞이 엉망이었다면 분리불안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강아지 문제가 곧 **층간소음 걱정**으로 이어지니 이웃과의 소통도 함께 챙기세요.

## 분리불안의 신호

핵심은 **혼자 있을 때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산발적으로 생기는 말썽은 지루함이나 배변 교육 미완성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 현관·창틀·출입구 근처를 집중적으로 물어뜯거나 긁는다
- 평소 잘 가리던 배변을 혼자 있을 때만 실수한다
- 보호자가 나가자마자 지속적으로 짖고 하울링한다
- 서성이고 심하게 헐떡이거나 침을 흘린다
- 탈출을 시도하다 다치기도 한다
- 돌아왔을 때 지나치게 격렬하게 반긴다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생활 패턴의 급한 변화(재택에서 출근으로), 이사, 가족 변화, 이전 보호자와의 이별, 혼자 있기에 익숙해지는 훈련 부족, 운동 부족이 겹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니 혼내지 마세요. 특히 입양한 강아지가 혼자 있기를 유난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단계: 외출 신호 둔감화

열쇠를 들고,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드는 **외출 신호**가 곧 불안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습니다. 실제로 나가지 않고 열쇠를 들었다 내려놓기, 외투를 입었다 벗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며칠에서 몇 주 반복해 강아지가 더는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하세요.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호들갑 없이 담담하게 대하세요.

## 2단계: 혼자 있는 시간을 초 단위로 쌓기

ASPCA에 따르면 불안 반응은 대부분 외출 후 **첫 40분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편안하게 넘기는 것이 첫 목표입니다. 스트레스 신호가 보이면 직전에 편안했던 단계로 되돌아가세요.

| 단계 | 혼자 있기 목표 |
|---|---|
| 1~3일차 | 닫힌 문 밖에서 3~10초 (외출 신호 없이) |
| 4~7일차 | 30초~2분 (둔감화된 외출 신호 사용) |
| 2주차 | 5~10분, 나가기 전 간식을 채운 장난감 제공 |
| 3주차 | 15~30분, 나갈 때·돌아올 때 담담하게 |
| 4주차 | 45~60분 (40분 고비를 편안하게 넘기기) |
| 5주차 이후 | 2시간 이상, 점차 근무 시간만큼 |

확인일 2026-11-08 · 출처: 멍냥뉴스 '강아지 분리불안 신호와 해결법', ASPCA, AKC, VCA. 정해진 마감이 아니라 우리 강아지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틀입니다.

아직 훈련이 못 미치는 긴 외출은 가족, 펫시터, 도그데이케어로 메우세요. 데이케어는 반나절 체험으로 반응을 먼저 보고, 등록 후 며칠은 식욕·배변·피로도를 살피세요.

## 훈련 속도를 높이는 일상 관리

- 혼자 두기 전 **30분 이상** 활동

-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간식을 채운 장난감으로 외출 초반 시간 분산
- 식사·산책·놀이를 규칙적으로
- TV나 백색소음으로 복도·이웃 소리 가리기

**전문가가 필요한 신호**

탈출하다 다치거나, 혼자 있을 때 사료를 거부하거나, 몇 주 꾸준히 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는 수의사나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중증은 행동 수정과 함께 수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임의로 약이나 영양제를 먹이지 마세요.

## 이럴 땐 이렇게

| 상황 | 대처 |
|---|---|
|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다 | 이웃·관리사무소에 훈련 중임을 알리고, 백색소음을 켜고, 짧은 외출 단계로 되돌아가기.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서두르기 |
| 나중에 혼내도 될까? | 안 됩니다. 불안은 반항이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사후 훈육은 불안만 키웁니다 |
| 한 마리 더 데려오면? | 첫 해결책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특정 보호자와 떨어지는 스트레스라 해결되지 않고 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이사 뒤 심해졌다 | 이사는 대표적인 계기입니다. 훈련을 첫 단계부터 짧게 다시 밟고 식사·산책 시간은 이전과 같게 |

| 회차 | 혼자 둔 시간 | 짖음·파괴 여부 | 다음 목표 시간 |
|---|---|---|---|
| 1 | | | |
| 2 | | | |
| 3 | | | |

부록 2

# 행동 기록지

숫자로 적어 두면 '좋아지고 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복사해서 쓰세요.

## 산책 줄 당김

| 회차 | 느슨한 줄 유지 시간 | 당김 횟수 | 방향 바꾸기 사용? |
|---|---|---|---|
| 1 | | | |
| 2 | | | |
| 3 | | | |

## 사회화 노출 체크

| 노출 대상 | 완료 | 반응(편안/불안) |
|---|---|---|
| 다양한 사람 | ☐ | |
| 건강한 다른 강아지 | ☐ | |
| 생활 소음(청소기·초인종) | ☐ | |
| 바닥 재질 | ☐ | |
| 이동수단·병원 대기 | ☐ | |

## 훈련 간식 점검

| 후보 간식 | 1개 칼로리 | 빨리 삼킬 크기? | 냄새 강도 | 하루 10% 이내? |
|---|---|---|---|---|
| | | | | |
| | | | | |

부록 3

# 용어 풀이

| 용어 | 쉬운 설명 |
|---|---|
| 긍정강화(보상 훈련) | 원하는 행동 직후에 보상해서 그 행동이 늘게 하는 방법 |
| 마커 워드 | "옳지"처럼 정확한 순간을 알려 주는 짧은 말. 클리커로 대신하기도 함 |
| 포착법·유인법 | 저절로 나온 행동을 보상하는 방법 / 간식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 |
| 해제 신호 | "기다려"가 끝났다고 알려 주는 말 ("좋아") |
| 노풀 하네스 | 가슴 앞에 고리가 있어 당길 때 몸이 옆으로 돌아가는 하네스 |
| 바이트 억제 | 사람을 물 때 힘을 조절하도록 가르치는 것 |
| 사회화 | 소리·사람·환경에 겁먹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노출하는 것 |
| 둔감화 | 무서워하는 자극을 아주 약하게 반복해 익숙해지게 하는 것 |
| 효소 세정제 | 배변 냄새를 분해해 같은 자리에 다시 하지 않게 돕는 세정제 |
| 분리불안 |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 |
| 수의행동학 전문가 | 동물의 행동 문제를 진료하는 수의사·전문가 |

부록 4

# 출처와 판권

## 이 책이 바탕으로 한 자료

- American Kennel Club: 기본 명령, 줄 당김, 물기, 배변, 켄넬, 분리불안, 사회화 안내 (akc.org)
- ASPCA: 물기·분리불안·하우스트레이닝 안내 (aspca.org)
- VCA 동물병원: 하우스트레이닝, 켄넬, 분리불안, 사회화 안내 (vcahospitals.com)
- AVSAB(미국수의행동학회): 강아지 사회화 입장문 — 생후 첫 3개월, 사회화 교실 7~8주 이후 조건
- Best Friends Animal Society: 줄 당김 안내 · PetMD: 켄넬 크기·훈련 간식 안내
- 동물보호법: 동물등록,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지자체 안내 참고)

## 멍냥뉴스 동네방네 원문 글

- 강아지 기본 명령어 훈련: 앉아·기다려·이리와 — dogdo209.com/basic-dog-commands-sit-stay-come/
- 목줄 당김 훈련, 산책이 편해지는 6가지 방법 — dogdo209.com/leash-training-stop-pulling/
- 강아지 사회화 골든타임 — dogdo209.com/puppy-socialization-golden-period/
- 강아지 물기 버릇 고치는 법 — dogdo209.com/how-to-stop-puppy-biting/
- 아파트에서 강아지 배변훈련 하는 법 — dogdo209.com/potty-train-puppy-apartment/
- 강아지 켄넬 훈련, 단계별로 따라 하는 방법 — dogdo209.com/crate-training-step-by-step/
- 강아지 분리불안 신호와 해결법 — dogdo209.com/dog-separation-anxiety-signs-fixes/

- 수의사가 추천하는 강아지 훈련 간식 — dogdo209.com/dog-training-treats-vets-recommend/

## 도움받을 곳

| 누구에게 | 언제 |
|---|---|
| 담당 수의사 | 갑자기 행동이 변했을 때, 배변 실수가 계속될 때, 약·영양제·접종 시기 상담 |
| 수의행동학 진료 동물병원,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 공격성, 자해, 심한 분리불안, 몇 주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
| 지자체·관리사무소 | 동물등록, 공동주택 배변·소음 규정 |

## 판권과 면책

이 책은 반려견 훈련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수의학적 진단·처방이나 전문 훈련사의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마다 성격·나이·건강 상태가 달라 같은 방법이 모두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공격성, 자해, 심한 분리불안 등은 반드시 수의사나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도(동물등록 등)와 제품 정보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발행처: 멍냥뉴스 동네방네 (dogdo209.com) · 포근지기 · 기준일 2026-11-08 · 다음 개정 예정: 2028년 (동물등록 규정은 매년 확인)